

'9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1월 4일까지 1억 5426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 홍콩에서 진상을 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원이 일가족과 함께 탈당

대륙에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한 이후 홍콩에 관광 오는 대륙 여행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바, 작년에는 5천만이 넘는 대륙 여행객이 홍콩을 다녀갔다. 대륙의 많은 여행객들은 홍콩의 새해 대행진을 보고 홍콩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부러워했고 나아가 파룬궁과 '3퇴'(퇴당, 퇴단, 퇴대)의 열조를 놀라워 했고, 특히 중공이 자행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장기 생체적출 죄악에 큰 진동을 받았다. 그들이 홍콩에 와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탈당센터에서 '3퇴'하고 평안을 보장받은 것이다.

**이들 동안 2백 명이 탈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원이 진상을 알고 탈당**

침사추이(尖沙咀) 탈당자원봉사자 아홍(阿紅)은 성탄절 이들 동안 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3퇴'시켰다.

한번은 관리나 부유한 상인처럼 큰 체격에 멋진 옷차림을 한 위풍당당한 북방사람들을 본 아홍이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가면서 진상을 알렸는데, 그들은 몇 분 만에 바로 '3퇴'에 동의했다.

아홍은 그들에게 공산당이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 응보를 받기 시



홍콩에서 새해 대행진을 통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폭로

작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당신들이 보라. 보시라야, 저우융강 등 악인들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당신들이 말해 보라, 악랄하지 않은가? 공산당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공산주의를 위해 끝까지 분투하고, 목숨마저 바치겠다는 지독한 맹세를 시키고 그들의 사당조직에 가입하게 했다. 우리는 이 지독한 맹세를 취소해야 한다. 어떻게 취소하는가?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과거에 했던 지독한 맹세를 취소하겠다고 표시해야 한다. 하늘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들은 그 세 사람은 곧 '3퇴'에 동의했다.

또 다섯 사람이 줄을 서서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다. 그들에게 '3퇴'를 권했지만 그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명품가방을 사겠냐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아홍은 그들에게 '홍콩과 대만에는 공산당이 없지만 모두 잘 지내고 있다. 지금 대륙이 경제는 발전했지만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엄청난 연무현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또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해 돈을 벌고 있다. 목숨을 잃는데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검은 돈을 벌겠는가? 빨리 '3퇴'를 해야 평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 고위 관리들이 모두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중 한 젊은이는 아주 열심히 듣더니 다른 쪽에서 줄 서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우리 책임자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원인데 저분이 탈퇴하면 우리들도 탈퇴할게요"라고 말했다. 아홍은 그 젊은이에게 '누가 퇴출하면 그가 생명을 보장 받는다.'고 말해주고 그 책임자 앞에 가서 진상을 알리면서 "저분들은 모두 당신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순순히 '3퇴'하겠다고 대답했고, 그 네 사람도 따라서 '3퇴'를 했다.

### '3퇴' 하여 평안을 얻음이 제일 좋은 새해 선물

탈당자원봉사자 아홍은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서명을 도우면서 또 짧은 시간에 몇 십 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도와 '3퇴'를 시켰다. 또 관리처럼 보이는 세 명의 대륙 여행객이 생체장기적출 그림을 보면서 속삭이고 있었다. 아홍이 다가가자 그 중 한 사람이 재빨리 진상신문을 받았고, 세 사람은 곧바로 앞을 향해 걸어갔다. 아홍은 그들을 따라 잡고 진심으로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파룬궁을 박해하던 고관들이 하나하나 응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홍콩에 와서 이런 진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빨리 사당에서 탈퇴하세요. 이것은 제일 좋은 새해 선물입니다."라고 말하자 한 사람이 웃으면서 "탈퇴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3퇴'를 했다.

### '당신 탈퇴했어?', 대륙 사람들 속에 유행하는 '3퇴' 바람

탈당자원봉사자 아홍은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3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나는 이미 탈퇴했어요, 몇 년 전에 대기원 시보에서 탈퇴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너는 탈퇴했어?"라고 물으면서 "빨리 탈퇴하게. 나는 이미 탈퇴했네"라고 말했다. 탈퇴한 후 모두 매우 기뻐했다.

## 대륙 각지 6천여 민중이 중공 생체장기적출 만행에 반대 서명

[밍후이왕] 12월 중순 대륙 민중 310명이 서명으로 장기적출에 반대한 이후 보름도 지나기 전에 또 6,259명이 중공(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만행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동시에 그들은 저우융강(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이 생체장기적출을 지시, 방임한 죄악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 의회는 5억 유럽민중을 대표하여 긴급 결의안을 투표로 통과시켜 '양심수 및 종교 신앙인과 소수민족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중공에 촉구했다.

2013년 12월 10일 전 세계 5대

주 53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50만 명이 서명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중공의 만행을 제지하는 청원편지'를 UN에 제출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생체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외침과 행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 지금껏 있어 본 적 없는 악랄한 행위다. 정의로운 사람들과 단체들이 그 만행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만행의 증거가 끊임없이 드러나 전 인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양심이 있는 사람, 단체, 사회기구도 충분히



대륙 6,259명 민중이 서명하여 생체장기적출 반대 일어나 상응하는 행동을 취했고, 다 함께 인류의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이 극악한 행위를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륙 민중들도 마음속 외침을 표출했다. 대륙 민중은 '이렇게까지 나쁜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가장 소박하고 간결한 한 마디 말로 놀라움과 분노를 드러냈다.



# 사당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법을 얻어 수련의 길에 들어서다

[밍후이왕] 나는 산둥 파룬궁수련생이다. 내가 직접 겪은 사실들로 인해 나는 중공사당이 파룬궁을 모함하는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한 중공사당의 탄압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나는 대법수련을 시작했다.

## 파룬궁을 모함하는 중공에 3차례 대항하다

1999년 파룬궁에 대한 중공사당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가 B형 간염으로 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퇴원하려고 할 때 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를 찾아와 직장의 경기가 어떤지? 직장에 치료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직장의 경기가 나빠 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치료비 청구는 생각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내가 파룬궁수련자라는 증언만 해주면 나의 병원비를 청구해 주겠다고 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묻자 그들은 기가 꺾여 돌아갔다.

2001년경 택시기사인 나의 남편이 A시까지 손님을 싣고 갔는데 도로 중간에서 사람들을 협박해 파룬궁 사부님의 초상을 밟아야 통과시켰다. 남편은 곧 차에서 내려 나는 파룬궁 수련도 하지 않고, 파룬궁 사부와 안면도 없고 원한도 없는데 왜 그분의 초상을 밟고 지나야 하는지 묻고는 사부의 초상을 피해서 차를 몰고 지나갔다. 경찰들은 멍하니 눈을 뜨고 불뿐이었다. 남편은 나중에 경찰은 정말 무위한들

이라고 말했다.

남편의 젊은 이종사촌 동생이 술좌석에서 술기운에 갈로 사람을 찔러 인명사고를 냈다. 가족들은 돈으로 연줄을 달아 자식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살리고 싶으면 파룬궁을 연마하다가 마가 들렀다 하라”고 시켰다. 가족들이 “우리는 아무도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니 경찰이 하는 말이 수련하는 친척을 찾아 ‘파룬궁’책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다. 이 가족이 나의 남편을 찾아와 사정을 말하자 남편은 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의 친구를 찾아가 ‘파룬궁’ 서적을 빌려 오라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이런 일을 하면 자신이 악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니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나는 그 친구가 나에게 보라고 준 ‘파룬궁(수정본)’을 갖고 있었다.

이상 3가지 사실을 통해 나는 중공사당의 사악한 강패본성을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작은 현금 시에서도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데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여러 차례 생각한 끝에 파룬궁을 수련하기로 결심하고 2003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 우리 가족은 대법의 은덕을 입다

나는 이전에 B형 간염, 심한 현기증, 산후 복통 등 질병에 시달리다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모든 질병이 저도 모르게 사라졌다. 나만 건강



2014년 1월 1일 홍콩 파룬궁수련생 새해 대행진, 파룬궁수련생 대열은 민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했고, “당신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힘내세요! 당신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은덕을 입었다.

여러분들도 파룬궁진상을 이해하고 모두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기를 바란다.(글/ 쑤아이 구술 수련생 정리)

# 두목 리둥성 낙마, 610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밍후이왕] 허베이성 서북부에 화이라이(懷來)현이 있는데 장자커우(張家口)시에 속하며, 베이징과는 12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의 포도주 고장이다.

2013년 11월 5일 전직 중공중앙(原中共中央) ‘610사무실’ 주임이며 공안부 부부장인 리둥성(李東生)이 화이라이현에 들어와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가중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배치를 했다. 리둥성은 선전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대하며, 전 방위로 인터넷 관리를 감행하여 (파룬궁 수련자)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고 기고만강하여 떠들어 댔다.

리둥성이 얼타이쯔(二台子)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마음은 틀림없이 뜨거운 가마위의 개미와 같았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금년 8월 이후부터 리둥성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저우융강이 잡혔다는 소문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리둥성이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과연 한 달 후인 2013년 12월 20일 리둥성은 체포되었고 일체 직무를 빼앗겼다.

리둥성이 낙마하기 전에 화이라이현에 들어 온 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갇힌 짐승의 최

후 발악으로써 공개적인 행동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요인’으로 반격하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을 보호하기도 어렵게 된 파룬궁 박해 두목 장쩌민 부류의 패당들이 자기를 구해줄 것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보여 준 비열한 모습은 현지 뉴스에 보도된 외에는 다른 매체에서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과거에 공개된 리둥성의 공식 직함이나 호칭에서는 모두 ‘610사무실’ 주임이란 이 비밀 칭호가 없었다. 그러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에서 리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소식에서는 첫 번째 직함이 바로 ‘610사무실’ 주임이었는데 리둥성이 파룬궁 박해의 주요 두목 중 한 사람임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악명 높은 ‘610사무실’은 1999년 6월 10일에 설립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악랄한 인권의 장쩌민이 설립한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 기구로 법률 위에 군림한 나치의 게슈타포나 10년 동란 때의 ‘중앙문화혁명소조’와 비슷한 것이다. ‘610’은 공, 검, 법, 사, 국안, 선전, 외사 등 약 20여 개 부서를 규합해 온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 부으면서 파룬궁



리둥성

을 박해했다.

파룬궁을 박해한 직접적인 실체 조직인 ‘610사무실’은 중앙으로부터 성, 시, 현, 향, 심지어 공안국, 학교와 공장, 광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것의 기구가 있다. 십여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를 일종 직업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아직도 ‘610’을 위해 목숨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고한다. ‘노동교양제도 폐지’와 ‘610’ 두목 리둥성이 당한 악보를 경고로 삼아 ‘천멸중공’의 역사적 필연을 인식하고 낭떠러지에서 걸음을 멈추어 자신의 살길을 남겨라! ‘610’ 두목 리둥성이 이미 낙마했는데 ‘610’은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겠는가?